

# 종교의 자유를 누릴 자격



손봉호 (대표주간)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기아대책기구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들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란 실제로는 ‘종교적’ 병역거부이다. 종교적 자유가 공적인 요구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이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현행 헌법이 명시하는 ‘양성평등’을 ‘성 평등’으로 바꾼다는 소문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그것도 종교적 자유와 공공영역의 요구 간에 마찰이라 할 수 있다.

종교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이며 주로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것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고등 종교라면 단순히 그 신앙이 관념의 세계에만 국한될 수 없다. 신앙은 삶 전체에 반영되어야 하고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표현될 수밖에 없다. 특히 기독교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신앙의 표현과 실천이 공적 영역에서도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는 다른 어느 종교보다 더 공적 영역에서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처럼 문화적 전통이 기독교가 아닌 경우에는 그 갈등이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공적 영역조차도 그 사회의 지배적 종교에 의하여 운영되고 성격이 결정되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나 힌두교와 일부 불교 국가에서는 종교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지배적인 종교는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지만 다른 종교의 경우에는 포교와 개종이 금지되거나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공적 영역이 완전히 분리되어 종교적으로 중립적이며 ‘국가와 교회의 분리’ (separation of state and church)는 선진사회의 표식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 모든 종교는 충분히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비록 비기독교적 배경에서 문화가 형성되었지만 기독교인들이 공적 영역에서 자유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가 공휴일로 제정되어 있지 않는 소수의 국가 중 하나이지만 그 때문에 일본 그리스도인이 큰 불편을 겪지는 않는다. 그런데 최근 이런 상황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심지어 기독교적 전통을 가진 나라들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점점 불편해지고 있는 것이다. 가장 기독교인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에서도 요즘은 ‘즐거운 크리스마스’ (Merry Christmas) 대신 ‘행복한 축제일’ (Happy Holidays)이란 말로 성탄 인사를 해야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종교, 다원주의 시대이므로 크리스마스를 축제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라 한다. 비록 법적인 처벌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더라도 기독교인들이 마음 놓고 성탄일을 축하하기가 거북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물론 문화의 세속화로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정적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적인 영역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

권리를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공적영역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이기도 하다. 공적 영역의 주된 관심이 개인의 자유보다는 사회적 평등에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주체가 가정에서 학교로 대치되고 노인의 복지가 자녀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보장되는 등 사적인 영역의 폭은 계속 축소되고 반면에 공적 영역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행, 불행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이나 초자연적인 운명 혹은 신의 뜻에 의하거나,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주장이 점점 더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환경과 조건이 공적인 통제에 의하여 조정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동안 기독교 전통이 시작하고 도입한 기본 인권과 만인 평등 정신이 인류의 보편적인 신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그 평등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적 영역의 지배력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평등의 요구는 더 강해지고 실제로 조금씩 이뤄지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민주주의나 평등 같은 가치가 하나의 중요한 이념(이데올로기)이 되어 종교적 신념으로 주장되고 시행되는 것 같다. 평등 정신이 확산되고 그 때문에 공적 영역이 확대되고 강화되는 상황을 그리스도인이 부정적으로 평가할 이유는 없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며 모든 사람은 그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고귀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보편적 가치를 인류문화에 심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요 기독교라면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공적 질서에 어긋나거나 공공영역을 약화하는 방법을 쓰는 것은 이제 가능하지도 않거나 바람직하지도 않다. 오히려 공적 영역을 더욱 중요시하고 그것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공헌함으로써 도덕적 권위를 얻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한국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여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랑의 봉사에 철저함으로 사회의 존경을 받는 것이 성경적이고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일 것이다. 즉 십자가적 희생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 특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그렇게 당연하고 필수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매우 세속적인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개인의 구원과 세속적 이익에 몰두한 나머지 철저하게 이원론적이 되어 공적 영역을 거의 다 세속적 세력에 맡겨버리고 스스로 변두리로 밀려나왔다. 그동안 공적 영역은 엄청나게 확대되고 강화되

었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한 채 이방인이 되어 설자리도, 할 수 있는 일도 잃어버리고 따라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자유도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이혼과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교회 세습, 선거부정, 표절과 공금횡령으로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한국 교회가 공공 영역에서 무슨 힘이 있으며 어떻게 독특한 종교적 자유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런 수준의 도덕적 권위로 동성애를 반대한다면 무슨 메아리가 일어나겠는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종교의 자유를 공적 영역에서 누리려면 그만큼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권리를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공적 영역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